

기고

국가데이터처 승격, 범정부 데이터 혁신의 시작

■ 올해 10월은 대한민국 데이터 정책의 의미 있는 전환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1990년 개정한 통계청이 35년 만에 마침표를 찍고, 국가데이터처로 새롭게 출발했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선 국가적 혁신 의지의 선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의 순간을 맞으며 세계적 지휘자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의 “오케스트라는 개별 연주자의 합이 아니라 하나의 악기”라는 말이 떠올랐다. 각 부처가 추진해 온 데이터 정책 역시 훌륭하고 귀중한 개별 악기의 선율과 같지만, 이제는 흠어진 데이터를 하나의 국가적 흐름으로 모으는 역할이 필요하다. 그렇기에 승격 후 데이터처의 각오는 명확하다. 국민이 믿을 수 있는 데이터를 쉽게 활용하는 데이터강국 실현을 목표로 범

정부 데이터 총괄 조정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것이다.

2026년은 이런 다짐을 실천으로 옮기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인공지능(AI)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데이터 활용 관리 체계를 확립한다. 전방위 데이터 혁신을 위해 범정부적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국가데이터위원회를 신설해 데이터 정책을 심의·의결하고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조정위원회를 통해 정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자 한다.

데이터 관리 체계 구축도 중요하다. 국민 안보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데이터를 등록·관리해 멸실을 방지하고 공공·민간데이터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연계·결합되는 구조를 만든다. 여기에

국가데이터 분류체계 구축과 품질관리 등의 데이터 제도를 통해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려 한다.

데이터의 가치와 활용도도 높이고자 한다. 현재 생성형 AI는 표 형태의 데이터를 바로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를 해결하고자 AI 친화적 통계 메타데이터를 구축한다. 데이터의 정의·의미·해석방법과 탐색경로를 함께 제공해 AI가 데이터를 쉽게 이해·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정과제 지원을 위한 국가통계개발에도 힘쓸 것이다. 산업구조변화파악을 위해 5년 주기 경제총조사, 지역 생활 인구·지역투자동향지표 작성 등 지방정부의 현장 정책을 지원한다. 또 지출 변화를 반영한 소비자물가지수 개편으로 현실 체감도를 높인 통계도 제공한다.

복지와 국민 안전을 위한 통계 작성·

개선도 준비 중이다. 영케어러(가족돌봄), 결혼의향 등 변화하는 사회상을 보여주는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공표하고 불평등 지표 개발을 검토한다. 또한 국민 안전과 공공서비스 혁신을 위해 자살통계와 소득이동통계를 개선하고, 행정리별 생활기반 통계지도를 서비스할 예정이다.

우리는 이번 승격이 단순한 행정 변화에 그치지 않고 데이터 정책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국민의 하루가 더 편리해지고 국민의 하루가 더 풍요로운 미래” 그것이 우리가 열어야 할 데이터 시대의 약속이다.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

